

즐거운 불편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세상

‘공정여행’



旅行(여행):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객지로 나다니는 일
公正(공정): 공평하고 올바름

공정여행이란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나에게 제일 먼저 다가왔던 이미지는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조합이었다. 하기가 ‘공정무역’이라는 대안적 방식에 대해 알고 그 취지에 공감하여, 활동하게 된 것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니, ‘공정’이란 접두어가 붙은 이 새로운 개념이 생소한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처음 필리핀에 도착해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에 모두가 모여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여행이란 무엇인가?’였다. 나에게 있어 여행이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에 대한 낯선 느낌과의 만남, 그것을 낳은 여행지의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와 돌아켜 보건대 나에게 이번 여행은 ‘다름’과 더불어 그 다름에 대한 ‘동질성’을 깨닫는 것이었다. 이번 여행이 대단한 것을 배우거나, 삶의 가치관을 단숨에 바꿀 정도의

‘충격적인 계기’가 되진 않았다. 하지만 애초에 공정여행에 대해 접했을 때, 그저 사전적 의미의 조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의 인식을 깨고 이제 여러 현상들에 대해 한번쯤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있는 나에게 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란 작은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여행하는 내내 되도록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과 숙소,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끼리만 즐기는 배타적 여행을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현지와 친해질 수 있었고 까무잡잡한 동남아시아 사람들로 대표되는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을 조금이라도 깨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내가 자원봉사로 일하는 아름다운 가게 주변에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꽤 많이 찾아온다. 그들은 다른 한국 손님들과 다름없이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가격을 묻거나 불만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물건을 산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봉사자들은 그들의 생김새와 어눌한 한국어만 듣고는 그들이 최근 도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양 신경을 곤두세울 때가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풍족한 국가의 우월감을 즐긴 것이 아닌가 싶다. 깨고 싶어도 쉽게 깨어지지 않는, 내 마음에 뿌리 깊게 박힌 천박한 우월함은 필리핀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반성과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지의 관습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이번 공정여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급속히 무너져가는 '계단식 논'을 복원하고, 사라져가는 '몸바키(제사장)'와 함께 축제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 곳 시민단체와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회성의 도움'으로 끝나지 않고 고민과 토론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게 이번 공정여행의 매력 중 하나였다.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단기 해외 자원봉사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스펙'의 한 줄로 전락해버린 것은 이런 '고민의 시간'이 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백화점 '몰 오브 아시아(Mall of Asia)'와 세계 3대 빈민 지역으로 꼽히는 '바세코(Baseco)'가 10km를 사이에 두고 공존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폐해를 극명히 보여주는 슬픈 그림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이 두 곳을 모두 돌아보면 서 우리는 여행 내내 고민했던 질문에 답을 구하게 된다. 수 천만 명 중 겨우 '나 하나'가 이런 최악의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



가?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동하는 용기'이다. 공동의 뜻이 연대되어 발휘할 수 있는 변화의 힘을 믿는 것이다. 아이와 여성의 노동착취로 만들어진 상품을 기꺼이 구매하는 것, 지역의 재래시장과 유통구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입을 저지하는 것, 현명한 소비자라 시민으로서의 '나'의 결심과 행동. 이런 개인들이 만드는 변화 속에서 '공정(公正)함'을 이루어 낼 수 있고, 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마지막 수료식에서 코디네이터 고두환 씨는 공정여행의 '즐거운 불편'을 언급했다. 여행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이제 '즐거운 불편'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일상에서도 기꺼이 이 '즐거운 불편'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개개의 연대가 만들어 내는 변화'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글 **신소예** | 고려대 경제대학원 석사과정
- 공감만세 필리핀 여름 공정여행 참가